



제08-08호

2008년도 북한 대외경제 전망

조명철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소장 (mjcho@kiep.go.kr, Tel: 3460-1185)

홍익표 동북아경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iphong@kiep.go.kr, Tel: 3460-1041)

주요 내용

- 지난 2007년에는 북핵문제가 2·13 합의와 10·3 합의로 상당한 진전을 보였고, 이를 계기로 북·미 양자간 대화가 지속되면서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이 핵실험 이후 최악의 상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음.
- 그러나 2007년 말까지 이루어졌어야 했던 북한의 핵신고 지연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북미관계 개선도 지연되면서 대외경제 환경의 개선이 북한 대외경제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음.
- 그 결과 2007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은 2006년의 29억 9,600만 달러보다 줄어든 27억 달러 수준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경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도 한층 심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2008년도 대외경제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의 진전 여부,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정치·외교 및 경제적 관계의 진전 여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여부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며, 특히 금년 2월에 출범하는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본 글에서는 2008년도 북한 대외경제의 상황전개를 △ 상황전개 I: 북핵문제 진전, 남북관계 개선, 북한 대외경제 환경 개선 △상황전개 II: 북핵문제 담보 상태, 남북관계 소강 국면, 북한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지속 △상황전개 III: 북핵문제 합의 결렬, 남북관계 악화, 북한 대외경제 환경 악화 등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함.
- 한편 △ '상황전개 I'의 경우 무역총액은 32억~35억 달러, 대북 투자는 3억~5억 달러
 △ '상황전개 II'의 경우 무역총액은 25억~27억 달러, 대북 투자는 5,000만~1억 달러
 △ '상황전개 III'의 경우 무역총액은 23억~25억 달러, 대북 투자는 거의 중단될 것으로 각각 전망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문제 제기

- 2007년 들어 북핵문제는 2·13 합의와 10·3 합의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북미관계도 양자간 대화 등을 통해 급진전되면서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은 핵실험 이후 최악의 상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음.
- 그러나 핵문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됨으로써 2007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및 외자유치는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2007년도 북한 대외경제의 부문별 실적들을 분석하고, 향후 북핵문제의 진전 및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몇 가지 상황별로 북한의 2008년도 대외경제를 전망해보려고 함.

2. 2007년도 북한 대외경제 평가

가. 무역부문

- 2007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은 6자회담의 2·13 합의에 따른 북핵문제의 진전과 북·미 양자 대화의 복원, 남북관계의 개선 및 정상회담 개최 등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이후 취해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사실상 해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13 합의의 이행이 BDA 문제로 상당 기간 지연됨으로써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과의 무역이 정체 내지는 감소하였음.
- 그 결과 북한의 2007년도 대외무역은 2006년의 29억 9,600만 달러보다 줄어든 27억 달러 수준에 머문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의 대외무역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한층 심화되었고,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임.
- 주요 수출품목은 석탄, 수산물, 광산물, 철강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원유 등 에너지, 곡물, 유류, 전기기기, 기계류 및 화학제품 등으로 여전히 고부가가치 상품은 거의 없고 원자재 중심의 무역구조를 보였음.
- 특히 북한은 2007년도 대외무역에 있어 유류 및 곡물류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외화를 지출한 것으로 보임.

■ 중국

-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5억 8,200만 달러로 2006년 대비 24.4%, 수입은 13억 9,200만 달러로 13.0% 각각 증가하였으며, 무역총액은 19억 7,400만 달러로 16.1% 증가하였음.
-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과의 무역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이 증가함으로써 북한 대외무역의 대중국 의존도는 70%(2006년도 56.7%)를 상회하여 역대 최고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¹⁾

표 1. 2007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5	497	-14.6	1,085	36.5	1,582	14.9	-588
2006	468	-5.8	1,232	13.5	1,700	7.5	-764
2007	582	24.4	1,392	13.0	1,974	16.1	-810

자료: World Trade Atlas.

- 북한의 대중 수출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중국 동북지역 경제발전으로 인한 중국의 연료자원 수요 증가에 따른 대중 석탄 수출 증가, 중국의 대북 광산개발 투자 증가로 인한 석탄 및 철광석 등의 수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임.
- 대중 수입 증가는 식량을 비롯하여 광물성 연료, 기계류, 화학섬유, 차량 및 부품, 고무 등의 수입 증가에 기인함.
- 특히 2007년에는 유류 및 곡물류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 원유 및 쌀의 구입비용이 약 3억 800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입액의 22%를 차지하였음.²⁾

표 2. 북한의 대중국 원유(HS2709) 및 쌀(HS1006) 수입 추이

연도	원유 수입(HS2709)				쌀 수입(HS1006)			
	수입액		수량		수입액		수량	
	백만 달러	증가율	만 톤	증가율	백만 달러	증가율	천 톤	증가율
2005	198	-41.9	52.3	-1.7	12	24.9	47.6	26.9
2006	247	24.7	52.4	0.2	11	-8.3	38.5	-19.1
2007	282	14.2	52.3	-0.2	26	136.4	80.7	109.6

자료: 중국해관총서.

- 1) 이는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남북교역을 제외한 결과임. 2007년도 남북교역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17억 9,78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따라서 남북교역을 포함한 국가별 무역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44%, 한국이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 2) 쌀을 비롯한 곡물류의 대중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2006년도 한국의 대북 식량차관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7년 8월의 수해 피해로 곡물 감소가 예상되자 식량수급 불안을 해소, 완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태국

- 북한의 대태국 수출은 3,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78.6%나 감소하였고, 수입은 1억 9,200달러로 15.4% 감소하였음.
- 그 결과 무역총액은 2억 2,800만 달러로 42.3% 감소하였고, 무역적자도 1억 5,600만 달러(2006년 5,900만 달러)로 크게 늘어났음.
- 북한의 대태국 무역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태국이 핵실험에 따른 대북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2007년에는 크게 감소하였음.
- 북한의 대태국 수출은 귀금속류, 동, 기계류(전기기기, 음향기기 등), 철강제품 등이 주요 품목들인데, 경제제재로 인해 대부분의 품목들이 수출제한을 받았음.
- 주요 수입품목은 고무, 목재, 알루미늄 등의 공업원료와 전기기기 등으로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아 소폭 감소에 머물렀음.

표 3. 2007년 북한의 대태국 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5	133	46.2	206	-13.8	339	2.7	-73
2006	168	26.3	227	10.2	395	16.5	-59
2007	36	-78.6	192	-15.4	228	-42.3	-156

자료: World Trade Atlas.

■ EU

- 북한의 대EU 수출은 전년대비 56.1% 감소한 8,6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도 7,600만 달러로 51.9% 감소하여, 무역 총액은 1억 6,200만 달러로 54.2% 감소하였음.
- 북한과 EU 간의 무역이 크게 감소한 것은 EU가 북핵실험 이후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EU의 대북제재 내용에는 △무기 금수 △핵 및 미사일 기술 △ 사치품 금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EU 국가들과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들에 대한 검색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표 4. 2007년 북한의 대EU 무역 현황(2007년 11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5	66	-54.5	202	14.8	268	-16.5	-136
2006	196	197.0	158	-21.8	354	32.1	38
2007. 1~11	86	-56.1	76	-51.9	162	-54.2	10

자료: World Trade Atlas.

■ 러시아

- 2007년 9월 현재 북한의 대러 수출은 2,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9.8% 늘어난 반면, 수입은 7,300만 달러로 61.6% 감소하여, 양국간 무역총액도 1억 100만 달러로 51.9% 감소하였음.
- 러시아가 2007년 5월에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조치에 서명하고 동참하였지만, 대상물자는 군수품과 귀금속 등의 사치품에 제한하여 실제 무역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양국간 무역 감소는 대러 수입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물성 연료 및 광물류의 국제가격이 급등하면서 북한이 이를 수입할 수 없게 된 것이 주원인으로 보임.

표 5. 2007년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현황(2007년 9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5	6.9	-54.5	224	14.8	231.3	-16.5	-136
2006	20.1	191.3	191	-14.9	211.1	-8.7	-171
2007. 1-9	28.1	39.8	73.4	-61.6	101.5	-51.9	-45

자료: World Trade Atlas.

■ 일본

- 2007년도 북한의 대일 무역총액은 900만 달러로 전년대비 92.6%나 감소하였음.
- 북일교역은 2001년 이후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핵문제 등의 정치적 사안으로 인해 매년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왔는데, 2006년과 2007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실시 이후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양국간 교역이 급감하였음.³⁾

표 6. 2007년 북한의 대일본 무역 현황(2006년 11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5	132.3	-54.5	63	14.88	195.3	-16.5	-136
2006	77.8	-41.2	44	-30.2	121.8	-37.6	34
2007	0	-100.0	9	-79.5	9.0	-92.6	-9

자료: World Trade Atlas.

3) 일본이 취하고 있는 대북제재 조치는 △북한선박의 입항 금지 △ 북한 물자의 수입 금지 △북한 국적자(재일동포 제외)의 입국 금지 △미국 등과 함께 대북 해상봉쇄 및 검색에 자위대 참가 △금융동결 조치를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물론 위폐제조나 마약판매 의혹 단체와 개인으로까지 확대 △유엔 결의안의 '사치품(luxury goods) 금수조치'에 따라 고급 자동차, 최신형 전자제품, 고급 의류 및 시계, 외국산 양주 및 화장품, 고가의 식료품 등의 대북 수출 금지 △한국이나 중국 등을 경유한 우회무역 단속 등임.

나. 투자 및 대외경제협력

- 북한의 전체 외자유치액은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우나, 최근의 대북투자는 대부분 중국 및 화교 자본인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기업들의 대북투자는 2005년과 2006년 상반기에 집중되었음.
 - 중국기업의 대북투자 누계는 2006년 상반기까지 44개 사업으로 투자합의액은 2억 1,935만 달러이며, 실제투자액은 1억 2,722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6년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실험으로 대북투자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중국기업들의 대북투자가 거의 중단되었으며, 2007년에도 신규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2007년 상반기 동안 북핵문제가 담보 상태에 빠지고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대외경제환경이 2006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북한은 경제대표단의 해외방문, 무역 및 투자상담회, 여타국과의 경제협력협정 체결 등을 통해 대외경제협력 확대에 주력하였음.
 - 중국
 - 북한과 중국은 2007년 9월 북경에서 '제3차 경제·무역·과학기술 협조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업·제철부문 투자와 무역활성화 등을 논의
 - 북한은 6월의 '제18회 하얼빈 무역상담회'와 '제2회 단동시 북한 수출입상품 전람회 및 북중 경제 무역투자상담회' 그리고 9월의 '제2회 길림 동북아 투자박람회'에 각각 참가
 - 또한 7월에는 평양에서 최초의 단일국가 무역전람회인 '중국 경공업제품 무역전람회'를 중국 측이 개최
 - 러시아
 - 북한과 러시아는 3월에 제4차 '북·러 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를 개최하여, △북·러 간 채무문제 △북·러 철도연결사업 △에너지 협력문제 등을 협의
 - 5월에는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임업분과위'를 개최하여, 극동지역으로의 북한 벌목노동력 송출과 목재생산 및 분배 등의 임업부문 협력사업을 집중 협의
 - EU
 - 북한과 EU는 10월 평양에서 '북한·유럽동맹 경제토론회(DPRK-EU Economic Seminar)'를 개최하여, 농업·경공업·IT 등 산업 및 금융분야의 정보교환과 경제협력 확대에 대해 논의⁴⁾

- 이밖에도 양측은 3월에 '북한·EU 기업간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7월에는 '북한·EU 기업인 간 교류·통상 촉진을 위한 무역조정이사회 설립규약'에 합의
- ASEAN 및 중동
 - 2007년에 가장 주목되는 것은 북한·베트남 간 경제협력으로 북한의 경제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김영일 내각총리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방문하였으며, 방문기간 중 해당국과의 경제협력 및 투자활성화 등을 집중 논의
 - 태국 록슬리 태평양 주식회사의 대표단이 9월 평양을 방문하여 동북아전화통신회사(NEAT&T) 통신설비 관리운영 문제에 합의
 - 이집트의 오라스콤은 7월에 평양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현대화와 운영을 위한 합영계약서 체결하였는데,⁵⁾ 특히 오라스콤사는 향후 나선경제무역지대, 광물생산, 발전소 및 항만 등에도 투자할 계획
 - 8월에는 임경만 무역상을 대표로 하는 경제대표단이 이란과 시리아를 방문하여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협의하였는데, 특히 시리아에서는 '제5차 북·시리아 경제공동위'를 개최

3. 2008년 북한 대외경제 전망

가. 2008년도 대외경제정책 방향

- 북한은 2000년대 이후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리 중심의 국내 및 대외경제정책을 적극 모색하였지만, 북핵문제로 인한 대외환경의 악화, 소극적인 개혁·개방 정책, 에너지 및 원부자재 부족으로 인한 산업가동률 저하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2008년도 신년사설에 제시된 북한의 경제정책 핵심과제는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목표로 한 경제강국 건설이며, 따라서 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대외경제정책도 보다 적극성을 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공화국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의 2008년도 신년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금년에 주목되는 것이 강성대국건설의 '주공전선'으로 '경제전선'을 제시할 정도로 경제부문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됨.

4) 이 회의는 2004년과 2005년에 이어 3번째 개최된 것으로 EU위원회, EU의회 및 나우재단 등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북한·EU 간 경제협력 활성화 및 북한경제 발전방안 등을 협의함.

5) 오라스콤사는 상원시멘트에 1억 1,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동 기업소 지분의 50%를 취득할 예정(*Financial Times*, 2007. 7. 16).

- 북한이 금년도 대외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북핵 진전에 따른 국제사회 및 개별국가의 경제제재 해제(특히 미국의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 해제) 유도
 - 원유, 코크스탄 등 에너지자원 및 핵심 산업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국·러시아 등 전통적 협력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 수출확대, 노동력의 해외진출, 제3국에서의 협력사업 등을 통한 대외경제협력의 다각화와 외화수입 증대 노력
 - 대중 의존도 완화와 새로운 경협 파트너의 발굴; 금년에 가장 주목되는 북한의 경협대상국은 베트남
 - 선진기술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와 투자환경 개선
 - 국제금융시스템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 북한의 2008년도 대외경제 역시 전년과 유사하게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의 진전 여부, 주요국과의 정치·외교적 관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금년 2월에 출범하는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남북관계의 불확실성도 북한 대외경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나. 북한의 대외경제 상황전개 시나리오

- 2008년도 북한의 대외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변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전 여부와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의 남북관계임.
- 북핵문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대외경제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인바,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핵 불능화의 완료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 △시리아와의 핵 협력 여부 등에 대해 북측의 성실한 신고 이행
 - 둘째,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 해제
 - 셋째, 핵실험 이후 취해진 UN 및 개별국가들의 대북 제재 해제
 - 넷째, 6자회담 진전에 따른 에너지·경제 지원 및 북미, 북일 관계 개선

■ 금년 2월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데,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는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북한의 대남정책 조정 및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도 강제하게 될 것임.

- 한국 신정부의 출범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정서적 불일치: 한국에서 보수정권이 출범함으로써 인한 남·북 당국간 정서적 불일치 증대
 - 정책방향 불일치: 기존 대북 포용정책의 경우 북핵문제와 남북협력을 병행 추진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엄격한 상호주의와 함께 북한의 인권 및 정치체제 문제를 경협과 연계하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북 당국간 정책방향의 불일치 증대
 - 현장에서의 불일치: 남북 당국간 정책의 불일치로 인해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과정에서 시행자들간의 불일치 증대
- 전반적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라 남북관계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로 이어질 것임.
- 특히 2000년 이후 남북경협이 북한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 경색이나 남북경협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조정 및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결국, 금년도 북핵문제의 진전 여부와 남북관계를 주요 변수로 한 북한 대외경제의 상황전개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⁶⁾

- 상황전개 I: 북핵문제 진전, 남북관계 개선, 북한 대외경제 환경 개선
- 상황전개 II: 북핵문제 담보 상태, 남북관계 소강 국면, 북한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지속
- 상황전개 III: 북핵문제 합의 결렬, 남북관계 악화, 북한 대외경제 환경 악화

다. 상황전개별 전망

1) 상황전개 I: 북핵문제 진전, 남북관계 개선, 북한 대외경제 환경 개선

6)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북한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많은 시나리오가 존재하지만, 본 글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3가지를 선택해서 상황전개를 설명하고자 함.

- ‘상황전개 I’은 북한이 기존 합의사항인 핵불능화와 북핵시설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미국도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 등의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등 6자회담이 원활히 진행되고, 이러한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한국 신정부가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함.
- 이를 위해서는 핵 불능화 및 핵시설 신고가 2008년 상반기 중에 해결되고, 미국의 상응한 경제제재 해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이 경우 핵실험으로 인한 기존의 유엔 및 개별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북 경제제재는 전면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북핵문제 해결 차원에서 6자회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유 및 에너지설비 지원 및 식량지원이 진행되고, 2007년 10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경협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북한과 미국·일본을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 간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중국·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및 외교관계도 한 단계 제고될 것임.
- 이와 같이 2008년도 상반기 중에 북핵문제가 타결된다면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예상되는 가시적 성과들은 다음과 같음.
 -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 및 개별국가들의 경제제재 해제
 - 미국의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 해제
 - 북핵문제 진전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 추진
 - 북중경협 확대 및 북일경협 재개
 - 해외기업들의 대북 진출 분위기 조성
 - 남북경협의 기합의사항의 원만한 추진
 - 한국정부의 ‘비핵 개방 3000’ 프로젝트의 시작

상황전개 I의 2008년 대외경제 전망

■ 무역

- UN 및 개별국가들의 경제제재 해제, 특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가 이루어짐으로써 북한의 대외무역이 기계류, 전자기기, 원자재류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무역에서 대중 의존도가 줄어들고, 일본, EU, ASEAN 등으로 다변화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북한상품과 북한기업의 열악한 국제경쟁력, 낮은 산업가동률, 산업연관성의 취약 등으로 무역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 북한의 대외교역이 2000년 이후 연평균 8%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2008년에는 예년성장률보다 최소 2배 수준 이상의 성장이 예상됨.
 -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북미 공동선언 등이 발표된 2000년에 33%, 2차 핵위기가 제기되기 전인 2001년에 15% 각각 증가하였음.
- 따라서 상황 I의 경우 무역총액은 2007년보다 5억~7억 달러 정도 늘어난 32억~35억 달러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투자

-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회담 참가국 및 국제사회는 핵포기에 따른 보상 (incentive) 차원에서 북한의 에너지 및 SOC 부문 등에 대한 대규모 개발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08년의 경우 북핵 타결이 상반기 내에 이루어진다 해도 연내에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우며, 초기 사업추진 및 관련사업의 조사 등을 위해 약 1억~2억 달러 정도의 소규모 투자가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한국정부는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기합의사항인 안변지역 조선산업단지 개발, 개성-평양 간 도로 개보수, 개성-신의주 간 철도 개보수, 백두산관광사업 등과 신정부의 '비핵 개방 3000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경우 한국 및 외국계 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이 경우 북핵사태 이전인 2006년 상반기까지 급증세를 보였던 중국기업의 대북한 진출 러시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크며, 중국정부 차원의 지원성 투자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경우 미국, 일본 등 서방기업들의 대북투자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북 투자의 리스크를 감안할 때 개별기업들은 2008년에는 시장조사 차원의 소규모 투자를 우선할 것으로 예상됨.
- 종합하면 '상황전개 I'의 경우, 대략 3억~5억 달러의 대북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2) 상황전개 II: 북핵문제 담보 상태, 남북관계 소강 국면, 북한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지속

- '상황전개 II'는 북한이 '행동 대 행동'을 요구하면서 핵 불능화를 지연시키고 핵시설 신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미국도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은 채 6자회담 틀에서 북·미 양측과 참가국들 간의 공방이 계속되는 것임.

- 이 경우 북핵문제는 담보 상태에 빠지게 되고,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한국 신정부의 정책으로 남북관계도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은 핵문제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임.

상황전개 II의 2008년 대외경제 전망

■ 무역

- 현재 북한의 교역수준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최소품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협상 결렬이 아닌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2007년도 교역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신정부 출범 이후 남북경협이 비핵화와 연계될 경우, 북핵 해결이 담보 상태에 빠진다면 지난해 정상회담 합의사항은 추진되지 않을 것이고, 신규 경협사업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중국으로 인해 북한 대외경제부문에서의 대중 의존도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미국, 일본 중심의 경제제재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북중경협과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베트남,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결국 북핵문제 해결이 담보 상태에 빠지고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북한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북한의 대외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강화 등을 통해 경제난을 타개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상황전개 II'에서의 2008년 무역총액 수준은 전년도 수준의 대외무역 규모를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한 25억~27억 달러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투자

-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북핵문제가 담보 상태에 빠진다면 중화학산업이나 SOC 분야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중국 동북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북한 내 원자재 및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나 중동지역 국가들의 일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대북투자 예상액은 5,000만~1억 달러 정도일 것으로 예상됨.

3) 상황전개 III: 북핵문제의 합의 결렬, 남북관계 악화, 북한 대외경제 환경의 악화

- '상황전개 III'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6자회담을 통한 합의에 실패하고 회담이 중단되면서 북미관계가 악화되는 것으로, 이 경우 6자회담의 틀은 해체되고 북미관계의 위기감이 한층 고조될 것임.
- 그러나 미국이 8월 이후부터는 대선 국면에 들어가고 여전히 이라크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06년도 핵실험 당시와 같은 군사적 위기로의 발전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북한 역시 핵시설 재가동이나 추가 핵실험 등으로 미국 및 국제사회를 자극하기보다, 우호적인 국제여론 조성 노력과 함께 미국 대선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유엔과 개별국 차원의 대북제재 수준은 6자회담이 결렬된다고 해도 더욱 강화되거나 추가적 제재조치가 발표되지는 않고, 현 수준의 경제제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한국의 신정부가 북핵협상 결렬을 이유로 남북경협과 인도적 지원을 축소하거나 취소할 경우 남북관계도 상당한 위기 국면에 빠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경제에서 남북경협의 중요성이 제고된 것을 감안할 경우 북한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임.
 -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 북한의 대남정책은 지난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 당시의 ‘통미 봉남’ 이나 ‘당국 배제, 민간교류 중심’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역시 미국·일본 등의 반대로 인해 인도적 지원 물자조차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지난해 최악의 수해로 곡물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북한 으로서는 식량난이 더욱 가중되어 대량의 기아 및 탈북 난민사태 등이 재발할 수도 있음.

상황전개 Ⅲ의 2008년 대외경제 전망

■ 무역

- 북핵문제로 인한 대외경제 환경의 악화가 전면적인 대북 경제봉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최소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임.
 - 2006년 10월 북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되고 중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표면적으로 동참했지만, 실제 북중경협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일본, 한국과의 위축된 부분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양상을 보였음.
- 따라서 북한 대외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남북경협도 중단·위축될 경우 2008년도 북한의 교역규모는 2007년도 추정액인 27억 달러 수준에 비해 다소 줄어든 23억~25억 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투자

- ‘상황전개 Ⅲ’에서는 신규투자가 거의 중단될 것으로 전망됨.